

'GIFT' 개관 7주년 광주 영화 발자취 되짚다

CULTURE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광주독립영화관, 18~19일 기획전 '모 베테리 시네마...'

광주극장·여성영화제 등 공동주최...역대 상영작 구성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7주년을 맞아 광주 독립영화인들이 그간의 활동을 되짚고 서로를 응원하는 뜻깊은 기획전을 마련했다.

(사) 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가 주최하고 광주여성영화제와 광주극장, 광주독립영화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7주년 기획전 '모 베테리 시네마, 모 베테리 라이프'가 오는 18~19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

광주독립영화관은 지난 2017년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 사업에 광주가 선정되면서 문을 열었다.

광주독립영화관 명문표기(Gwangju Independent Film Theater)의 약자는 선물을 뜻하는 'GIFT'로, 시민들에게 영화를 통해 선물 같은 일상

의 특별함을 선사하고 나아가 지역의 문화다양성 확장에 기여하며 영화인들의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7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는 광주독립영화관의 역할을 되새기고, 광주 독립예술영화인들의 활동을 응원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 전국유일의 단관 극장인 광주극장 개관 90주년을 맞아 1935년부터 광주 도시의 역사와 시민들의 기억을 간직한 광주극장의 가치를 되새기는 작품을 비롯해 책박한 지역환경에서 꾸러미 영화제를 열어난 광주여성영화제와 광주독립영화제의 역대 주요 상영작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의미를 더했다.

먼저 18일 오후 5시부터 제12회 광주여성영화



(사) 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7주년 기획전 '모 베테리 시네마, 모 베테리 라이프'를 18~19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진행한다. 사진은 영화 '내 이름' 스틸컷.

관 작품상 수상작인 허지은·이경호 감독의 '행인'과 13회 수상작인 김은희 감독의 '함친이는 자라서', 14회 수상작인 조한나 감독의 '퀸의 뜨개질'을 차례로 선보인다.

또 오후 7시부터는 11회 수상작인 김은희 감독의 '슬레'와 15회 수상작인 심이안 감독의 '뺨고' 상영 후 김도연 감독, 심이안 감독, 조아영 배우가 참여하는 GV가 이어진다. 진행은 김재희 광주여성영화

제 집행위원장이 맡는다.

19일은 광주독립영화제 상영작을 만나본다. 오후 3시 이경호 감독의 '흔사'와 김아솔 감독의 '원샷'에 이어 오윤주 유수안 감독이 연출한 '광주극장'을 상영한다. 광주극장을 사랑하는 관객들과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다큐멘터리로 광주극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이다.

끝으로 오후 5시 송원재 감독의 '내 이름'을 상영한다.

수급자인 민서와 취업준비생인 서연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제13회 광주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됐다.

상영 후에는 송원재 감독이 참석하는 GV가 마련된다. 진행은 김태진 광주청년센터 센터장이 이끈다.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7주년 기획전 '모 베테리 시네마, 모 베테리 라이프' 예매는 디트리스트를 통해 가능하다. 영화 관람료는 5000원.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스케치로 담아낸 ACC와 도시 풍경

문화재단 대나무 정원에서 'ACC에 관한 스케치' 20일까지 작품 260여점·아트상품 70여종·13일 어반스케치 워크숍

ACC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담아낸 스케치 작품 260여점이 전시로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욱)은 'ACC에 관한 스케치' 전시를 오는 20일까지 문화정보원 대나무 정원에서 진행한다.

ACC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과의 협력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열린 전시에서 'ACC의 다양한 공간을 지역 화가들의 시선으로 더욱 친근하게 만나 볼 수 있었다', '휴게 공간을 잘 활용해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좋았다'는 관람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지난해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 작가만 참여했다면 올해 전시에는 광주·전남지역 외에도 서울, 인천, 고양, 부산,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작

가 91명이 참여한다. 올해 열리는 전시 주제는 '어반드로잉&아트 상품'로, ACC와 도시 이야기를 담은 260여점의 작품과 그 그림을 소재로 개발한 아트상품 70여종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전시와 연계한 '어반스케치 워크숍'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제회의실과 야외광장에 서 열린다. 이번 워크숍에는 어반스케치스 전국 회원을 비롯해 ACC 기자단 및 서포터즈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 작가 리모(김현길)가 '길 위의 예술, 어반스케치'라는 주제로 강연과 함께 시연을 펼친다.

어반스케치스(Urban Sketchers)는 자신이 살고 있거나 여행하는 도시와 마을을 현장에서 그리는 세계적인 단체로 전 세계 70개국 450개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에 결성된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에는 현재 19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광주의 옛 거리와 건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그려낸다.

서동환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 대표는 "어반스케치&드로잉은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을 매개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온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함께 격려하며 성장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ACC와의 협력으로 광주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회원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ACC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소수자들 일군 작은 사회 집중 조망 윤수중 교수 '소수자들의 삶...' 출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틈틈이 문예지에 발표해온 글들을 모아 소수자들의 현주소를 조망한 책이 나왔다.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윤수중씨가 삶을 살아 가면서 관계를 맺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색다른 작은 사회들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는 소수자들의 미시공간(작은사회)을 살펴보고 있는 '소수자들의 삶과 커뮤니티'(문학들 7)가 그것으로, 계간 '문학들'에 연재된 글을 엮었다. 2014년 펴낸 '소수자들의 삶과 문학'과 2019년에 낸 '소수자들의 삶과 기록'에 이은 세 번째 책이다.

미시공간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사회의 지층을 확장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사회의 시선은 냉담하다는 관점에서 논의가 출발하는 '소수자들의 삶과 커뮤니티'에서 만날 수 있는 소수자들은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스스로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삶의 형식을 바꿔 가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삶 형식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기존의 사회관계를 바꾸어 가려는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이번 책에 실린 여러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저자는 성노동자와 이주자, 장애인, 성소수자, 용감한 사람들 등 편의상 몇 가지 범주로 나눠 접근했다. 먼저 성노동자와 관련한 두 개의 글 가운데 '스물여덟의 삶과 성노동 경험'은 명문대 여성의 성노동 경험을 다루고 있으며, 김주희의 '금융화와 성매매'는 '학생이 벌 수 있는 돈치고는 많이 벌었죠'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실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과의 인터뷰와 이에 대한 분석으로 이뤄져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다.

또 이주자와 관련해 첫 번째로 농촌사회 연구자 정수정의 글 '밥 한 끼의 무게'는 애초에 '농촌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중개인의 삶'이란 부제가 붙어 있다. 이 글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참여관찰과 인터뷰한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최영일의 '제한준머인들의 이주와 공동체 형성'은 방글라데시 치타공산악지대를 흐르고 있는 카르나푸르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자 설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좀더 사람들, 땀 건설에 따른 수몰지구의 증가와 보상에 대한 계획도 없이 추진됐던 결과에 따른 그들의 이주와 정착 과정을 살피고 있다.

장애인 편 '오늘도 괜찮아'에서 아우주는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청년 남성과 성소수자를 겪고 있는 청년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조현정동정과 함께하는 10년'에서 백혜정은 조현정의 발병 과정과 증상에 대해 설명한다.

성소수자 편 23-170-80-똥은 '케이 라이프'에서 23살, 170센티, 80킬로 똥보인 게이의 삶에 대한 솔직한 심정과 경험, 생각을 들려주고 있으며, 박대영은 '여정남자의 삶과 생활동'에서 남성 만족감을 위해 여정을 하는 남성 CD(여성남자)를 다루는 등 여성남자의 세계를 보여준다. 교수주 기자

예술비평 위한 새로운 지평 진단 아르코, 공연창작주체 비평집 발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아르코(ARKO))는 '공연예술창작주체 비평집'을 최근 발간했다. 비평을 창작의 영역으로 통합해 신설한 '공연예술창작주체' 지원사업의 특성을 살려 지원사업의 주요 공연과 비평가를 직접 매칭, 동시대 공연예술의 주요 담론을 이끌어 냈다.

아르코는 지난 한 해 규모와 지역적 한계로 인해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의 실험적 시도를 발견하고, 창작과 비평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공연예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비평 기획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연예술창작주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비평가(단체)와 작품을 직접 매칭해 공연이 담이낸 가치를 조명하고 확산했다.

연극과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전 장르의 주목할 만한 공연을 대상으로 70여 편의 비평이 진행됐으며, 비평문은 아르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됐다.

그중 일부가 이번 비평집으로 제작됐다. 비평집을 통해 돌봄, 반례, 주가 등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주제부터 꿈, 운명 등 추상적인 주제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동시대 공연예술의 의미를 비평가의 언어로 살펴볼 수 있다. 교수주 기자

무등산에 울려 퍼지는 '국악한마당'

광주문화재단, 토요상설 라인업 공개...내일 '광대의 유쾌한 세상'

광주문화재단은 전통 공연예술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2025 토요상설공연' 작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토요상설공연'은 2012년부터 14년 동안 전통문화관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 공연은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총 24회 열린다.

행사는 주차별 주제형 공연으로 꾸며진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판소리·산조, 국악 창작, 연희·무용 17팀과 광주시 무형유산 전수자 7인의 초청 공연 등 상설 공연만의 특색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매달 첫째 주에는 판소리·산조 공연이 진행된다. 기대희·김란희(5월 3일), 조혜진·유서정(6월 7일), 공현진·신선민(7월 5일), 이연주·이선민(9월 6일), 김맑음·김다혜(10월 4일) 씨가 출연한다.

둘째 주는 국악창작 공연으로 연우기획(4월 12일), 화양연화(5월 10일), 포르투나(6월 14일),

모자이크(7월 12일), 해화살내악단(9월 13일), 떠돌이(10월 11일) 팀이 출연한다.

셋째 주는 연희·무용 공연으로 창작연희국악단 홀릭(4월 19일), 그리사(5월 17일),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6월 21일), 바오무용단(8월 23일),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9월 20일), 소리매극 나래(10월 18일) 팀이 무대를 꾸민다.

넷째·다섯째 주는 무형유산 공연으로 황승욱 가야금병창(4월 26일), 문명자 가야금병창(5월 26일), 이순자 춘향가(5월 31일), 이영애 가야금병창(6월 28일), 방성춘 동초계 춘향가(8월 30일), 김선이 동초계 흥보가(9월 27일), 최연자 강산제 심청가(10월 25일)가 출연한다.

이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통문화관 숲속대문, 너털마당 등에서는 (사) 전통연희놀이연구소와 함께하는 '고구려 벽화 속 연희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5세기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에 담긴 다양한 연희를 현실에서 재현해 보고, 민속놀이 체험으로 광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광주문화재단의 '2025 토요상설공연'이 오는 12일 개막한다. 사진은 '2024 토요상설공연'.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행사 운영을 위해 공연 포스터를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한다.

또 ESG 경영의 새 화두인 문화 다양성 확대와 평등 실현 등을 위해 현장에서 디지털 배너를 통해 공연 프로그램 내용을 국민, 영문, 중문으로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토요상설공연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